월요광장

문화와 정신의 땅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

새로운 교황이 채택한 칭호와 관련하여, 필자는 성 프란치스코에 관한 글을 신문에 기고한 바 있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물론 교황의 칭호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 프란치스코는 그 특이한 행적으로 하여 가톨릭 성자 중에도 전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었던 탓일 게다.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의 어지러운 세계의 인간들에게 오늘의 삶과는 다른 또 하나의 삶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특히 관심을 더 끈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 특이한 것은 신앙이라든가 또는 다른 큰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기에 성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그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과 삶을 함께 하고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열심히 착하게 살면서 피조(被造)된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서 보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 매체들에 실린 글 가운데 페터 베스트룊이라는 사진작가가 성 프란치스코의 유적이 있는 고장을 돌아보고 독일의 신문에 기고한 탐방기는 이 점을 실감나게 해준다. 과장없이 정직하고 차분하게 쓰인 이 글은 프란치스코의 삶이 그의 고장, 그리고 이 세상의 땅에 얼마나 밀착된 것인가를 느끼게 한다. 글의 필자는 '프란치스코의 길'을 답사한 경험을 요약하여, 이 길을 걷는 것은 '두 차원의 길'을 가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산과 골자기를 지나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정신의 길을 가는 것이었다. 이 두 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는데, 적어도 묘사된 경치로 보건데, 고장과 산천에-그다지 외외하거나 장엄한 것이 아닌 그러면서 아름다운 풍경 속에 하나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풍경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땅과 문화에 정신이 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베스트 룊이 간 길은 스무 하루를 걸려서 수백 리를 간 길인데, 놀라운 것은 도중 소란하고 북적거리는 현대의 삶에 부딪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태리하면 생각나는 것이 부패한 정치, 금융위기에 된서리를 맞은 경제적 어려움이지만, 프란치스코의 길의 어디에서나 그가 본 것은 소박한 삶의 모습이었다.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놀라운 이야기 중의 하나는 험한 암산 비탈에 세워진 조그마한 교회에 여든 살이 된 수녀가 홀로 살면서 예순 마리의 산양을 기르는 이야기이다. 1960 년대에 이 수녀는 전쟁에 파괴되고 버려진 옛 프란치스코 수도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재건하여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의 소원은 성 프란치스코처럼 사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이 길의 주변이 험난한 곳이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집을 높은 언덕 위에 짓는 것이 중부 이태리의 풍습이었는데, 오래된 작고 아름다운 집들은 뒤로는 높은 산을 배경으로, 앞으로는 낮은 언덕이나 푸른 들판을 내려다보게 몰려 지어 있어서, 그림엽서에 수록하기에 적절한 듯한 풍경을 이룬다. 이 집들에서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또 언덕이나 산 위에는 프란치스코의 유적이 되는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고, 옛날의 귀족이나 성주 그리고 기사들의 궁전이 있다.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아름다운 자연이다. 이 답사기에도 인용되어 있는 성 프란치스코의 '태양 송가'는 그대로 이 풍토에 알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여, 찬양을 받으시라, 자매 달과 별, 형제 바람, 공기, 구름, 자매 물, 형제 불, 우리의 자매이고 어머니인 땅을 베푸셨으니."

이 탐방기의 필자는 마지막 일정으로 '산림의 정적과 고독'으로부터 나와 프란치스코의 고향 아시시로 들어섰을 때, 관광객들이 발디딜 틈없이 북적대는 거리의 소란함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나도 20여 년 전에 아시시에 들린 일이 있지만, 그것이 땅과 정신이 하나가 된 문화의 일부임을 깨닫지는 못하였다. 그러한 깨달음은 버스 관광이 아니라 도보의 노동으로 자연을 두루 경험하고 나서야 얻어지는 순례의 과실인 듯하다.

법조칼럼

1533년 한성부에서 있었던 일

이상현
광주지법 파산2단독 판사

무죄추정의 원칙, 참 쉽고도 어려운 개념이다. 더욱이 1789년 프랑스혁명의 산물로 설명되는 그 배경을 찾아보노라면, 소설이나 영화에서 '원님 재판'과 '고문'으로 묘사돼 온 우리의 형사재판 역사와 대비돼 괜한 씁쓸함마저 느껴지곤 한다. 그런데 얼마 전 동료 판사들과 중종 실록에 수록돼 있는 '용산강 근처에 발이 잘린 아이가 버려진 사건'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상세히 기술돼 있어 과연 누가 진범인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그 후 사건의 전말이 궁금해 전문(http : //sil-lok.history.go.kr)을 찾아보던 중 프랑스혁명보다 250여 년이나 앞선 그 1533년도의 기록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중종 28년(서기 1533년) 2월, 한성부 용산강 근처에서 두 발이 잘린 채 버려져 있는 5~6세가량의 노비 여자아이가 발견됐다. 이 끔찍한 사건을 전해들은 중종은 의금부에 조사를 명했는데, 발목이 잘린 아이는 한덕이라는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반면, 귀덕이라는 사람은 한덕의 집에서 나온 아이를 데려가 자신의 집에서 보살피던 중 동상으로 발이 빠졌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아이를 진찰한 의원은 아이의 발이 동상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하여 잘린 것이 분명하다고 봤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중종 실록의 해당 부분 중 4일치만을 발췌하여 요약했다.

〈중종 28년 2월18일〉

의금부가 "처음에는 상처받은 아이가 미욱하고 언어가 착란되어 믿을 만하지 못하게 생각되었는데, 지금 보니 말에 두서가 있어서 선후를 잃지 않습니다. 아이를 본부(本府)에 데리고 가서 자세히 묻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아뢰자, 중종은 "아이에게 자세히 물으려는 것은 혹시라도 미진한 일이 있을까 염려해서이지만, 지금은 사건의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 만약 아이를 옮겨오면 바람을 쐬어 죽거나 중상을 입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다"고 전교했다.

〈중종 28년 2월21일〉

의금부가 "여자아이가 분명히 한덕이 발을 잘랐다고 말하지만, 4~5세의 미욱한 아이의 말만 믿고 형추(刑推)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율(律)에도 80세 이후와 10세 이전 사람의 말은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고 아뢰자, 중종은 "발을 자르는 것은 잔혹한 것으로 세상에 드문 일이고 백성을 구휼하는 정사 중에 가장 먼저 할 일로 이 같은 어린아이를 구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발이 동상으로 빠진 것인지, 칼로 자른 것인지 의술에 능통한 의원과 한성부의 낭관에게 다시 살피고 검사하게 이르라"고 전교했다.

〈중종 28년 2월29일〉

의금부가 "의원은 발을 자른 것이 명백하다고 하나, 동상으로 빠진 다른 이의 발을 살펴보니 역시 잘라서 끊어진 모양과 같았습니다. 의원의 말에만 의거하여 귀덕을 계속 심문하는 것이 사리에 어떻겠습니까?"라고 아뢰자, 중종은 "의원은 모두 잘라서 끊어진 것이라고 말하므로 귀덕 역시 추문하였으나, 유사(有司)하고만 의논해서는 안 되니 대신들과 의논하도록 하라"고 전교했다.

〈중종 28년 2월30일〉

영의정과 좌의정이 "귀덕의 집에 이른 후에 두 발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자도 있는데, 단지 미욱한 아이의 말만 듣고 큰 옥사(獄事)를 만드는 것은 부당한 듯합니다. 의심스러운 옥사는 끝까지 밝혀 내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을 듯합니다"고 아뢰고, 우의정이 "이런 의심스러운 옥사는 끝까지 추문하더라도 실정을 알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귀덕이 무고하게 죽을 폐단까지 있습니다. 더구나 동상에 걸려 발이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고 아뢰자, 중종은 "귀덕의 공사는 근거가 없으니 추문하지 말라"고 전교했다.

양천제가 확립된 조선 중기 신분사회에서 발생한 노비 여자아이의 유기 사건을 가리켜 중종은 "백성을 구휼하는 정사 중에 가장 먼저 할 일로 이 같은 어린아이를 구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와 용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중상을 입은 피해자인 아이를 조사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아이의 건강이 악화하지 않도록 보살피며 목격자들을 먼저 탐문하는 방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다. 나아가 통상 유도신문이나 암시에 의하여 변용되기 쉬운 어린 아이의 진술을 선뜻 신뢰하지 않도록 한 당시의 법률은 20세기 초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증언심리학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며, 감정인에 해당하는 의원의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서도 신중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띈다.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은 역시 한덕과 귀덕을 모두 석방해 무리한 옥사를 방지하고자 한 삼정승의 건의다. 당시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노비들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추문하거나 유죄로 속단하고자 하지 않았던 위정자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서양 인권사의 전유물이 아니며, 쟁취하고 선언해야만 가질 수 있는 전리품도 아니다. 왕정과 신분제가 확립됐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노비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성심을 다했던 500여 년 전 선조의 모습으로부터, 오늘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기고

의료관광 허브도시 광주를 꿈꾼다

최범채
시엘병원장

작년에 청와대 부속실에서 개최한 해외환자유치를 위해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나는 참석자들과 그리고 고위관료들과 명함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광주에도 외국인 환자가 오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적잖이 당황했다.

늘 광주에서 살아오면서 어딘지 모르게 세뇌돼 온 것처럼 지역 소외감을 담고 살아온 탓에 가슴이 더 두근거리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 이미 외국인환자 부부가 상당수 다녀갔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자신감을 갖고 대답했다. "당신들은 수도권에서 비즈니스가 유리한 조건으로 에이젠시가 소개해주는 환자들을 진료하겠지만, 나는 우리병원에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고 있소"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광주에서 개업한 후 13년 동안 외국인 의사 연수생 20여명을 교육시키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은 조촐한 수료식을 진행해줬다. 우리병원 직원들과 함께 그들 나라 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하고 국가도 연주해줬다. 대부분의 연수생들은 눈물이 범벅되면서 예향 광주와 우리병원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담아갔다. 새로운 의료기술로 거듭난 의사가 광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친 광주파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우리 병원을 방문하는 대다수 외국 환자들은 이곳서 연수하고 간 해외 현지 의사의 소개장을 들고 온다. 사실 불임환자들을 의료관광의 후발주자인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이 아닌 광주의 불임전문병원에 소개하는 것은 웬만한 성의로는 불가능하다. 참으로 고맙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해외환자가 우리 병원을 방문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문제점을 체크하고 싶어 몽골에서 환자부부와 동행도 여러 번 해봤다.

몽골 여정은 인천공항에서 몽골가는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여정이 갑절 힘겨웠다. 광주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는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허무하게 취소되는 경우가 흔했다. 국제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인천공항까지 거액을 주고 택시에 몸을 싣고 위험을 감수한 적도 있었다.

해외에서 광주를 찾아오기도 힘들지만, 해외환자를 광주에서 진료하는 과정은 바윗돌에 난을 심는 일만큼이나 걸림돌이 많다. 이 때문에 우리 지역 공무원조차 "호남에서 해외환자 의료관광 사업이 되기나 하겠어요?"라며 의구심을 가진다.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시간보다 국내에서 움직이는 일이 더 불편하다면 누가 그것을 감수할 것인가. 허약한 관광인프라, 수도권과의 거리, 쇼핑센터의 부재 또한 적지 않은 감점요인이다. 올 초 어느 신문에 의하면, 한해 우리나라의 외국 관광객이 1000만명인데 그 중에서 광주·전남을 각각 10만 명이 찾았다고 한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이 현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주저앉아 있을 일인가.

나는 광주시의 의료관광 허브를 늘 꿈꾸는 사람이다. 광주는 전국적으로도 의료시설 과밀지역으로 손꼽힌다. 작고도 강한 병원들이 즐비하다. 광주 구도심 직경 1km 반경 내에 2개의 대학병원과 치과대학병원 그리고 병원역사가 100년이 넘는 병원을 포함해 병실 2000병상이 한곳에 밀집해 있는 현상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보기 어려운 일이다. 이미 광주 구도심에는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초대형 메디컬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의술과 의료기 또한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가지고도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모두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거듭한다면 광주시는 세계적인 메디컬 허브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 또한 광주시 고민거리인 구도심의 공동화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관광은 모든 산업 가운데서도 소위 투자대비 수익의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다.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고용창출 및 의료비 수입까지 포함되니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내 경험으로는 우리보다 후발국 의료진의 연수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그들에게 의료기술 및 지식을 전수해주는 방법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서울은 그렇게 할 병원이 많지 않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미용이나 성형 관광객들로 넘치지 않는가.

베트남, 몽골,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 개발도상국 의료진들은 제대로 된 선진 의술에 목마르다. 정책 당국과 민간이 긴 안목으로 투자한다면,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그들은 자청해서 우리에게 환자들을 보내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의료관광은 언젠가 우리 지역 특화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의료관광 허브도시, 광주를 꿈꿔본다.

社說

공교육 불신이 키운 사교육 의존도 심화

광주지역 학생 3명 중 2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이 학교 성적을 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 광주여성재단에 의뢰해 실시한 '광주학생생활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가운데 67.6%가 최근 3개월 사이에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년이 낮을수록 사교육 의존이 강했다. 초등학생은 81.7%, 중학생 73.5%, 고교생은 61.6%가 사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사교육의 학교 성적 기여 정도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 가량(88.0%)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는 '부모의 권유'(62.8%)와 '본인이 원해서'(56.2%)가 대부분이었다.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 '부모 권유'(42.3%)보다 '본인이 원해'(76.2%)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의존도 강한 것은 무엇보다 공교육, 즉 학교교육이 성적 향상을 감당하지 못한 데 있다. 공교육 불신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학업 성취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학원·과외 등 사교육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에도 문제가 있지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고교 성적이 전국에서 중위권으로 급격히 추락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당국은 사교육 과목이 수학·영어·국어 등 주요 교과목에 집중돼 있는 만큼 교과별·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또한 장휘국 교육감은 현재 광주교육이 처한 상황을 직시해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대신한다면 교육감과 교육청, 학교의 존재 이유가 없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앞당겨야

무등산이 국립공원 승격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전체의 77%, 공시지가 기준 800억 원대에 이르는 사유지 매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올해 사유지 매수 예산이 20억 원에 그쳐 공시지가로 매수하더라도 전체 사유지 매수까지는 40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예산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시의회 김선호 의원에 따르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 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75.425㎢로, 전남지역을 제외한 광주권 면적 47.6㎢ 가운데 사유지가 36.6㎢, 77%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임야는 34.4㎢, 전답은 1.4㎢, 대지 0.12㎢ 등이다.

이는 전국 국립공원 평균 사유지 비율 34%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더욱이 무등산 국립공원 사유지는 총 2723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 795억 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공원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유지 매수계획을 수립해 매년 30~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계획대로 사유지 매수가 진행된다면 어느 세월에 매수가 완료될지 난감한 실정이다. 게다가 올해 사유지 매수 예산은 21억 원으로 환경부 매수계획 예산에도 크게 못 미친다.

사유지 매수 예산이 올해처럼 매년 20억 원 정도에 그칠 경우 매수 완료까지는 40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한 토지 소유자들이 청원을 하게 된다면 정부 차원의 매입 계획 수정은 불가피하다.

현재 보전 필요가 있는 자연환경지구와 편의시설 설치 대상지 대부분이 사유지로 남아 있다. 이를 사들이지 못할 경우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편의시설 설치 등 국립공원 정비계획 차질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정부는 사유지 매수 예산을 대폭 상향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립공원 승격 의미를 살려야 할 것이다.

無等鼓

소포모어 징크스

소설가 천명관의 데뷔작인 장편소설 '고래'(2004년·문학동네)는 마력의 작품이다. 산골 소녀에서 벽돌 공장 사장으로 성공하는 금복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소설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독특한 이야기였다.

처음 '고래'를 읽었을 때 '이런 작품을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즐거운 기대가 넘쳤다. 하지만 솔직히 기대보다 먼저였던 건 '이 작가는 데뷔작이 대표작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아닌, 우려였다. 그만큼 '첫번째 소설'은 강했다.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영화감독 장진은 "'고래'를 끝으로 천명관이 다시는 소설을 안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정도 되면 다음 작품을 내놓을 때 작가의 부담은 실로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후 '고령화 가족', '나의 삼촌 부르스리' 등 차기작들을 내놓을 때마다 '고래'와 비교되는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운명을 뚫고 천 작가는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소포모어 징크스'(Sophomore Jinx)라는 게 있다. '2년차 징크스'라고도 불리는데 성공적인 첫 작품·활동에 비해 그에 이은 활동이 부진한 경우를 일컫는다. 음악이나, 영화, 스포츠 분야에서 두루 쓰인다.

'강남스타일'의 가수 싸이가 12일 119개국에서 신곡 '젠틀맨'을 동시 발매했다. 예상치 못한 메가히트를 터트린 '강남스타일'과 달리 작정하고 글로벌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젠틀맨'의 부담은 엄청났을 것이다.

곡에 대한 평가는 싸이 본인의 말처럼 '호불호'가 갈린다. 일부 외신들은 '전작 만큼 인기를 모으지 못할 것'이라며 소포모어 징크스를 언급하기도 했다.

13일 생방송된 콘서트에서 싸이는 말했다. "한국에서 나를 알아봐주는 데 10년이 걸렸다. 외국에서의 활동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외로운 도전'에 나선다. 많이 응원해 달라."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또 다른 도전에 나선 그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김미은 문화부장me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제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